

우리나라 창작동화에 나타난 공공도서관 이미지 분석 연구*

An Analysis of Public Library Images in Korean Original Fairy Tales

김 은 진 (Eun-Jin Kim)**

김 영 석 (Young-Seok Kim)***

초 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창작동화에 묘사된 공공도서관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여 어린이 독자가 내면화하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3차에 걸친 도서 검색과 내용 분석을 통해 2015년부터 2024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창작동화 13권을 최종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내용 분석을 위해 5개 대영역 12개 세부 영역을 분석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13권의 동화에 묘사된 공공도서관에 관한 내용은 총 45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84%인 378건은 공공도서관에 대한 긍정 묘사로 밝혀졌다. 분석기준 5개 대영역 중 가장 많이 묘사된 것은 '사회적 관계 형성'으로 총 134건이며, 긍정 묘사도 1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결과는 창작동화에서 공공도서관이 사회적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ntent of public libraries depicted in Korean original fairy tales to understand the image of public libraries that young readers internalize. Through three rounds of book searches and content analysis, 13 Korean original fairy tales published between 2015 and 2024 were selected for the study. For content analysis, 12 detailed contents in 5 areas were set as analysis criteria. The analysis revealed a total of 451 references to public libraries across the 13 fairy tales. Of these, 378(84%) were positive references to public libraries. Among the five major areas of analysis criteria, the most frequently described one was "formation of social relationships," with a total of 134 cases. It also had the highest number of positive references, with 126 cases. This result indicates that, in Korean original fairy tales, public libraries are perceived as institutions that serve as spaces for social interaction.

키워드: 공공도서관, 창작동화, 동화, 도서관 이미지, 도서관 인식, 어린이 이용자

Public Library, Original Fairy Tales, Fairy Tales, Library Image, Library Recognition

* 본 논문은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26.02)을 수정·보완하여 재작성하였음.

** 서울시 금천구 공공도서관 사서(annyyg2@hanmail.net / ISNI 0000 0004 8306 9774) (제1저자)

*** 명지대학교 인문콘텐츠학부 문헌정보학전공 교수

(yskim7@mju.ac.kr / ISNI 0000 0004 6502 7407)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6년 2월 20일 논문심사일자 : 2026년 3월 1일 게재확정일자 : 2026년 3월 8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7(1): 489-508, 2026.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6.37.1.489>

© Copyright 2026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문학의 힘은 세다. 문학은 글이라는 언어를 매개로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사회를 움직이는 은밀하고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또한 문학은 인간의 내면세계를 풍요롭게 하고, 외부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미국의 소설가이며 사회운동가인 Sontag(2003, 241)은 『타인의 고통¹⁾』에서 문학은 '우리 아닌 다른 사람이나 우리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능력을 길러주고 발휘하도록 해줄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문학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것을 간접 경험하게 하고, 타인의 삶과 시선을 이해하게 하고, 공감 능력을 확장하여 세상을 폭넓게 바라보게 한다. 아동문학인 동화도 마찬가지다. 동화는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본 현대사회 및 개인의 삶의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린이의 삶에 대한 태도와 세계관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조창현(2004)은 어린이에게 동화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정서와 가치관 형성, 어휘력 향상, 독서 습관 등 열거하기 어려운 정도의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어린이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조경희(2025)도 아동문학은 어린이가 사회를 인식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아동문학 중 창작동화는 단순한 이야기 전개 속에서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다양한 현상에 대한

인식과 생활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김자연, 2001), 어린이가 성장 과정에서 접한 문학 작품은 향후 어린이들의 정치적 사회화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김혜, 오성수, 2017).

창작동화는 어린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을 간접 체험케 함으로써, 사람과 세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 즉, 동화 작가는 글을 쓰면서 다양한 사회 현상 혹은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을 글의 소재로 삼아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동화를 쓴다. 그리고 어린이는 그런 동화를 읽음으로써 세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여러 사회 현상들을 간접 체험한다.

현대에 들어서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작가들도 도서관을 글의 소재로 삼아 동화를 쓰기 시작했다. 우윤희와 김종성(2014)은 우리나라에서 도서관이 창작동화의 내용 배경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이후 어린이도서관과 어린이 문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새롭게 독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환경이 변화되면서부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창작동화에 나타난 공공도서관의 이미지는 작가가 경험한 공공도서관을 어린이의 눈높이로 재구성한 것으로, 이는 현실 속 공공도서관의 모습을 간접 평가하거나 해석하는데 하나의 준거가 될 수 있다. 즉, 동화 속 공공도서관의 이미지를 통해 어린이에게 어떤 공공도서관의 이미지가 전달되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어린이는 미래의 도서관을 빚어낼 설계자고 미래 도서관 이용 문화를 선도할 주역이

1) Regarding the Pain of Others.

다. 따라서 어린이가 갖게 되는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정보 이용은 물론이고 독서, 학습, 교육, 소통, 휴식 등 복합 문화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변화하는 공공도서관을 근래에 간행된 창작동화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현재의 공공도서관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겠다.

창작동화는 당시 사회가 공공도서관에 대해 가진 시선과 실제 모습을 담아내는 매체이다. 즉, 동화에는 작가의 시선과 가치관을 통해 재해석된 공공도서관의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이는 어린이의 공공도서관 이미지와 인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동화에 투영된 공공도서관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작업은 어린이의 긍정적 도서관 경험 구축과 지역사회 내 공공도서관의 가치 확대를 위한 필수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창작동화의 작가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글을 쓰는 성인이다. 작가마다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 경험과 이해의 깊이가 다르고 창작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동화 속 공공도서관 이미지에 일정 수준의 편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근래에 우리나라 작가가 쓰고 국내에서 출판된 창작동화 속의 공공도서관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여 어린이가 내면화하는 공공도서관의 이미지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본 연구는 국내 창작동화가 공공도서관에 대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창작동화를 통해 현시점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대중적 이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창작동화를 이용한 특정 이미지 분석

당대의 문학에는 그 시대의 사회상이나 정신, 사상, 사고가 담겨있으며, 작가들은 현재의 사회 상황과 변화를 인식하고, 그 내용을 문학적 장치 안에 구성해 낸다(최경희, 2024). 특히 어린이를 주 독자로 하는 문학 작품의 간행은 일정 부분 교훈이나 깨달음을 주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창작동화 같은 문학 작품에는 당시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관과 행동 등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교육적 의도가 담겨있다(임미경, 2020).

이처럼 창작동화는 당대 사회상을 반영하고 어린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며 동일시를 경험하게 하는 강력한 매체다. 이상진(2001)은 어린이가 '생활동화' 혹은 '사실동화'에서 비판적 거리를 느끼기보다 동일시를 경험하기 쉽고, 일상에서 흔히 발견되는 모습이 동화 속에서 재확인될 경우 해당 이미지를 더욱 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어린이는 창작동화 속 인물이나 상황에 거리를 두거나 비판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몰입하고 등장인물의 경험을 나의 일처럼 쉽게 받아들여 자신과 연결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가 현실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미 관찰하고 경험했던 모습이 창작동화 속에서 재확인될 때, 그 이미지는 내면에 강력하게 고

착된다.

김자연(2001)은 어린이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주는 동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어렸을 때 인지된 개념은 쉽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아동문학이 평등한 성역할과 미래 지향적 여성 이미지 형상화에 진지한 대처와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창작동화의 특성을 활용하고 창작동화를 포함한 아동문학을 도구로 삼아 어린이의 가치관 및 특정 이미지 형성 과정을 분석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한편, 창작동화란 특정 작가의 독창적인 상상력에 창작 의도와 문학적 감각을 담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지어낸 이야기로 '떨쩍한 이유정', '마당을 나온 암탉'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2 선행연구

창작동화의 내용을 분석하여 특정 이미지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내용을 분석했는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창작동화를 분석하여 여성, 엄마, 직업, 장애, 동물 등 다양한 이미지를 분석한 선행연구가 있었다. 그렇지만 도서관 및 사서의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창작동화를 분석하여 다양한 일반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와 도서관 및 사서의 이미지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구분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2.2.1 창작동화를 이용한 일반 이미지 분석 연구

이상진(2001)은 우리나라 창작동화에 나타

난 엄마의 형상을 분석하여 어린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엄마가 보여주는 이중적인 이미지를 살펴보고, 어린이의 성역할 교육에 미칠 영향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서은주(2003)는 부모의 양육 태도가 담겨있는 전래동화와 창작동화를 분석하여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변화한 양육 태도의 양상을 비교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자녀의 존재 가치, 자녀의 사회적 성공에 대한 기대, 자녀 교육 내용, 부모 역할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전래동화에는 전통적 가치관이, 창작동화에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대적인 가치관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윤상욱(2006)은 동화는 현실 세계에 근거하므로 부모의 양육 행동과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고 아동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매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우리나라와 외국 창작동화에 나타난 부모 양육 태도와 자녀의 사회적 행동 특성을 비교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그는 조사 대상 동화의 내용을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 행동, 가정환경 및 경제 수준, 자녀의 사회적 행동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문화적 배경에 따른 양육 특성 및 자녀의 사회성 발달 양상을 분석하였다.

김혜, 오성수(2017)는 아동문학 속 직업의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즉, 연구자들은 아동문학 속에 등장하는 공무원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해 이들은 아동문학이 향후 어린이들의 공무원이라는 직업 선택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태도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임미경(2020)은 초등학생 대상의 권장 창작동화에 나타난 장애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는 동화에 장애 관련 내용을 신중하고 섬세하게 묘사해야 하며, 어린이를 배려하여 긍정적인 장애인관 및 인간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중선(2024)은 2020년과 2022년 환경부가 선정한 '우수 환경 도서' 중 국내 창작동화·그림책 10권을 대상으로 이들 도서에 소개된 동물의 삶의 형상화 방식과 동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사했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 2018년 이후 동화들은 사물과 동물의 시점 도입, 환경 파괴 소재의 다양화 등 문학적 역할이 확대되었으며, 어린이도 환경문제에 원인 제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는 아동문학이 동물과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린이가 문학을 바라보는 시각과 맞물리기 때문에 아동문학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창작동화를 포함한 아동문학을 매개로 어린이의 가치관, 태도,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들 선행연구는 아동문학 속에 현실 사회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음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또한 아동문학이 어린이 독자에게 강력한 동일시를 유발하며 일상의 이미지를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매체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아동문학을 통해 어린이의 긍정적인 가치관 및 태도를 형성하거나,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2.2.2 창작동화를 이용한 도서관 및 사서 이미지 분석 연구

창작동화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쓰이면서 문학의 본질적 특성에 따라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담아내게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창작동화는 어린이가 공공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경험하기 전에 도서관에 대한 최초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경로 중 하나가 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을 배경으로 국내 창작동화를 대상으로 동화 속에 공공도서관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동화의 주 독자인 어린이가 인식하게 될 공공도서관의 긍정적, 부정적 이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책의 내용을 분석해 책 속 도서관의 이미지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조사한 결과 그 사례가 많지 않았다. 그림책을 활용하여 도서관과 사서 이미지를 분석한 국내의 연구가 일부 있었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혜정과 현은자(2009)는 국내외에서 출판된 그림책 중에서 도서관과 독서 관련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도서 63권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그림책 속에 나타난 도서관의 기능과 이용법, 독서의 흥미로움과 즐거움에 관한 내용, 도서관의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모습 등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연구 결과 그림책이 도서관의 종류와 각 자료실의 기능을 보여주고, 독서의 흥미로움과 즐거움은 유아들의 상상력이 자극될 때 가장 크게 느껴지고, 도서관이 현대사회에서 지역사회의 새로운 비형식적 교육의 장으로서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Bogard와 Rafferty(2022)는 1994년부터 2014년까지 영국에서 출판된 아동 그림책 중에서 도서관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사서가 한 명 이상 등장하는 8권의 책을 선정하여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가 어떻게 묘사되는지 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일부 내용에서 사서에 대한 고정관념식의 묘사가 여전히 남아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21세기 들어서면서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묘사가 20세기에 비해 더욱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것은 우윤희와 김종성(2014)의 연구이다. 이 연구는 도서관을 배경으로 하고 2003년부터 2013년 사이에 발간된 국내 창작동화 14권을 선정하여 동화 속에 표현된 도서관과 사서의 모습과 역할을 분석하였다. 창작동화 14권은 각각 학교도서관에 관한 내용이 5권, 공공도서관이 9권, 상상 도서관이 3권이다.²⁾ 우윤희와 김종성(2014, 277)은 '동화 속에 나타난 도서관은 대체로 최근에 새롭게 단장을 하여 어린이들에게 호감을 주는 외형을 가지고 있고, 도서관의 역할은 독서활동에 편중되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활용이나 문화활동 등에 대한 반영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들은 조사 대상 동화 속 사서는 거의 모두 여성이었으며, 친절하고 적극적인 성향으로 아이들의 독서활동을 위해 노력하지만 교육자적 측면 등의 다양한 직업적 면모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창작동화에 묘사된 공

공도서관에 관한 내용을 분석해 어린이가 내면화하는 공공도서관의 이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작가가 쓰고 국내에서 출판된 창작동화 중 공공도서관³⁾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작품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창작동화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작동화의 주제는 최신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공도서관이 등장하는 작품을 분석하면 사람들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창작동화는 인물·사건·배경의 3요소가 뚜렷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또한 인물의 대사뿐 아니라 표정과 몸짓 같은 비언어적 표현도 잘 드러나 공공도서관이 등장하는 작품에서는 인물이 공공도서관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입체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분석하면 사람들의 공공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 수준을 유추할 수 있다.

국내 창작동화 중 공공도서관이 묘사된 모든 도서를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조사 대상 동화의 범위를 좁혔다.

먼저, 조사 대상 동화의 발간 연도를 최근 10년으로 한정하여 2015년부터 2024년 사이에 출판된 것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우윤희와 김종성(2014)이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2003년부터 2013년 사이에 출판된 창작동화 14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중복 연구를 피하고자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5

2)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중복, 학교도서관과 상상 도서관이 중복, 공공도서관과 상상 도서관이 중복 소개되는 책이 각각 한 권씩이다.

3)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시켰음.

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창작 동화를 대상으로 하여 동화 속 공공도서관의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 도서의 선정은 <표 1>과 같이 총 세 차례의 검색 및 내용 조사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한편, 조사 대상 도서를 선정하기 위해 서명 및 목차 검색 기능이 제공되는 온라인 서점인 알라딘의 상세 검색 기능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차는 도서 중에서 도서관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2015~2024년 사이에 발간된 창작동화를 선별하는 과정이다. 1차는 세 단계로 구성되고 두 가지 다른 방식의 검색이 각각 이루어졌다. 먼저 첫 번째 검색은 서명 검색으로 모든 도서 중에서 도서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 서명 검색을 하였다. 그리고 2단계로 서명 검색 결과 서명에 도서관 단어가 들어간 도서 중에서 2015~2024년 사이에 출판된 도서를 찾아냈다. 3단계로 2015~2024년 사이에 발간된 도서 중에서 창작동화만 선별하였다. 3단계의 창작동화 선별 과정을 자

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 2단계 '발간일(2015-2024)로 정렬' 결과 창작동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도서와 도서 권장 도서가 포함되어 있어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도서만을 선별하기 위해 분야별 보기 기능을 활용하였다. 즉, 검색 범주를 '국내 도서' > '어린이' > '동화/명작/고전' > '국내 창작동화'로 재검색하여 최종적으로 총 218권을 1차로 선정하였다.

다음은 목차 검색을 통한 조사 대상 창작동화 선정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도서 중에서 서명에는 도서관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으나 본문에 도서관 관련 내용이 들어간 도서가 있을 수 있어 이러한 도서를 찾아내기 위해 추가로 목차 검색을 하였다. 목차는 도서의 주요 내용 구성과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목차에 도서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 도서는 도서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을 확률이 높다.

목차 검색도 서명 검색과 마찬가지로 세 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목차 검색을 통해 목차에 도서관 단어가 들어간 도서를 검색하였다.

<표 1> 조사 대상 도서 선정 과정

구분		서명 검색	목차 검색
1차	방법	1단계: 서명에서 '도서관' 검색 2단계: 발간일(2015-2024)로 정렬 3단계: 창작동화만 재검색	1단계: 목차에서 '도서관' 검색 2단계: 발간일(2015-2024)로 정렬 3단계: 창작동화만 재검색
	결과	218권	75권
2차	방법	서명 검색(218권)과 목차 검색(75권) 결과 293권 중 도서관 이미지만 빌리거나 독서의 중요성만 강조한 도서는 제외, 도서관을 배경으로 하는 도서 선별	
	결과	81권	
3차	방법	1단계: 학교도서관 배경, 그림, 정보제공 및 이용안내 도서 제외 2단계: <표 4>의 선정기준 적용한 도서 선정	
	결과	13권	

그리고 2단계로 목차 검색 결과 목차에 도서관 단어가 들어간 도서 중에서 2015~2024년 사이에 출판된 도서를 찾아냈다. 3단계로 2015~2024년 사이에 출판된 도서 중에서 창작동화만 선별하였다. 목차 검색의 3단계 창작동화 선별 과정은 '서명 검색 1차 3단계' 과정과 동일하다. 목차 검색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총 75권을 1차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1차 서명 및 목차 검색 과정을 거쳐 총 293권을 선정하였다. 2차로 이 293권의 도서를 대상으로 출판사 서평 및 줄거리, 책 미리 보기 등을 통해 도서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도서관의 운영, 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없이 '도서관' 단어나 이미지만 빌린 『걱정 먹는 도서관』, 『털장갑 속 하트뿔』, 『도서관으로 간 씨앗』 등의 도서가 있었고, 도서관 보다는 단순히 독서의 중요성만 강조한 『멋대로 도서관』 등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도서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2차로 81권을 선정하였다.

3차에서 1단계로 다시 81권을 대상으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도서관 짓는 할아버지』, 『수상한 도서관』, 『책에서 나온 아이들』, 『매콤달콤 받아쓰기 특급 비법』, 『꼬마 사서 두보』 등과

같이 공공도서관이 아닌 학교도서관을 배경으로 삼은 동화책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창작동화이지만 『도서관 고양이』, 『바람 숲 도서관』, 『도서관을 끌격한 공룡』, 『물동이 도서관』, 『숲속 도서관』, 『도서관 사서의 하루』 등과 같이 그림책이거나, 『우리 마을 도서관에 와 볼래?』, 『나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 간 꼬마 도깨비』, 『친구도서관』 등처럼 동화의 내용이 도서관의 운영이나 시설 등에 대한 묘사가 아닌 정보제공 및 이용 안내를 목적으로 한 도서를 제외하였다. 그 결과 60여 권의 도서가 선정되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선정된 도서를 모두 내용 분석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많고 최적의 분석 대상 도서를 선정하기 위해 <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조사 대상 도서를 선정하였다. 연구자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우수문학도서 선정 기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세종도서 선정 기준,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의 올해의 청소년 교양도서 선정 기준,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 추천도서 선정 기준을 토대로 하고, 본 연구의 목적이 창작동화 속 공공도서관의 이미지 분석이기 때문에 동화에 공공도서관에 대한 내용이 두루 묘사됐는지의 여부를 근거로 해서 <표 2>

<표 2> 조사 대상 동화 선정기준

기준	내용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창작동화에서 공공도서관이 단순한 배경을 넘어,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이나 본질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있는 작품
등장인물의 내적/외적 성장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을 통해 등장인물의 긍정적인 변화나 성장을 그리고 있는 작품. 나아가 도서관 이용이 등장인물의 지적·정서적 발달을 촉진하는 작품
교육적 가치	실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묘사하여, 독자에게 도서관 이용 규범이나 올바른 이용 태도를 전달하는 데 도움 되는 작품
문학적 완성도	공공도서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스토리의 구성력, 표현력이 풍부한 문체, 그림과 텍스트 간의 유기적인 관계 등 문학 작품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

의 기준을 완성하였다. 최종적으로 <표 2>의 기준을 근거로 해서 <표 3>과 같은 13권의 창작동화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2 최종 선정된 조사 대상 국내 창작동화

최종 선정된 조사 대상 국내 창작동화의 현황은 <표 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논문 작성의 편의를 위해 동화의 서명을 축약하여 서술하였다. 조사 대상 동화 13권의 작가는 총 10명으로, 이병승 작가는 3권, 주애령 작가는 2권을 각각 저술하였다. 또한, 이 13권의 동화는 총 9개 출판사에서 발행했으며, 그중 서유재와 노란상상 출판사가 각각 3권의 동화를 발행하였다.

최종 선정된 13권의 도서에 등장하는 도서관의 유형을 살펴보면 공공도서관이 7권, 작은도서관이 6권이다. 한편, 이들 도서에 등장하는 도서관은 지은 지 오래되거나, 최근 개관 또는

리모델링한 것 등 다양하다. 예를 들면, 『여름』에 등장하는 도서관은 지어진 지 18년 된 것이며, 『위험』, 『방탄』, 『미래』에 언급된 도서관은 새롭게 생긴 것이고, 『낙서』에 언급된 도서관은 리모델링을 하였으며, 『붕붕』에 언급된 도서관은 기존 주민 센터를 도서관으로 용도 변경한 것이다.

3.3 창작동화의 내용 분석기준

최종 선정된 13권의 창작동화에 나타난 공공도서관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표 4>의 분석기준을 이용하였다. 이 기준은 '서울시 공공도서관 서비스 성과조사 평가 지표'⁴⁾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연구자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다.

서울시는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시민 혜택 측면의 서비스 성과와 영향

<표 3> 최종 선정된 조사 대상 국내 창작동화 13권

장르	서명/관종	축약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현실 동화	송현주 보러 도서관에/공공	송현주	이승민	노란상상	2018	105
	위험에 빠진 도서관을 구해라/공공	위험	홍예리	청어람주니어	2019	159
	붕붕 도서관을 지켜 주세요/작은	붕붕	조은진	별숲	2019	166
	책 도둑 할머니/공공	책 도둑	서석영	풀과바람	2020	131
	비밀 유언장/작은	유언장	이병승	서유재	2021	175
	여름 방학 숙제 조각단/공공	여름	이진하	사계절	2021	157
	비밀 도서관/작은	비밀	이병승	서유재	2023	164
도서관 낙서 사건/공공	낙서	박그루	밝은미래	2024	149	
판타지 동화	방탄 기사단과 책벌레/공공	방탄	김현태	가문비어린이	2022	79
	미래에서 온 아이/작은	미래	이병승	서유재	2022	163
	하얀 밤의 고양이/작은	하얀 밤	주애령	노란상상	2022	71
	리보와 앤/공공	리보	어윤정	문학동네	2023	120
	숨숨 도서관/작은	숨숨	주애령	노란상상	2024	101

4) 서울도서관 (2024). 2024년 서울시 공공도서관 서비스 성과조사 결과보고서, 4.

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도서관 서비스 개발 및 개선을 위한 근거데이터 확보를 위해 ‘공공도서관 서비스 성과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의 성과조사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거나 혹은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동 성과조사는 결과단계와 영향단계로 나누어 조사가 이루어진다.

결과단계는 도서관 서비스 이용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혜택을 평가하는 영역으로 여기에는 5가지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진다. 그 다섯 가지는 ‘공간 및 이용 편의성’, ‘정보 획득 및 활용’, ‘소통 및 정책 반영’, ‘문화·교육 향유’, ‘사회적 관계 형성’ 등이고, 그 아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영향단계는 ‘도서관 서비스가 시민들의 삶 전반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측정하는 영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 성과조사 중에서 영향단계를 제외하고 결과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표 4>와 같은 분석기준을 만들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분석기준은 5개 대(大)영역으로 구성되고, 다시 12가지 세부 영역으로 구성된다. 5개 대영역은 ‘공간 및 이용 편의성’, ‘정보 획득 및 활용’, ‘소통 및 정책 반영’, ‘문화·교육 향유’, ‘사회적 관계 형성’이다. 12가지 세부 영역을 살펴보면 ‘공간 및 이용 편의성’은 공간 접근성, 이용 환경의 편의성, 환경 쾌적성이고, ‘정보 획득 및 활용’은 자료 다양성, 자료 최신성 및 학습 기회, 자료 적시성 및 충분성이고, ‘소통 및 정책 반영’은 사서의 서비스, 정보 제공의 신속성 및 정확성이고, ‘문화·교육 향유’는, 프로그램 충족 및 참여기회와 봉사 기회 제공이고, ‘사회적 관계 형성’은 다양한 커

뮤니티 지원과 사회적 교류 형성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5개 대영역을 중심으로 12가지 세부 영역이 조사 대상 13권의 창작동화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즉, 조사 대상 13권의 동화 속에 서술된 공공도서관과 관련된 용어와 낱말 그리고 등장 인물의 도서관 관련 대화나 태도, 묘사, 설명 등을 분석하였다.

4. 연구 결과

4.1 5개 대(大)영역과 12가지 세부 영역 묘사

‘서울시 공공도서관 서비스 성과조사’ 지표를 토대로 설정된 5개 대영역의 12가지 세부 영역을 기준으로 삼아 조사 대상 13권의 동화책에 각각 해당 영역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묘사되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조사 대상 도서 13권에 5개 대영역이 묘사된 횟수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관계 형성’이 134회(29.7%)로 가장 많았고, ‘공간 및 이용 편의성’이 98회(21.7%)로 그다음으로 많았다. ‘문화·교육 향유’는 61회(13.4%)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 형성’ 대영역은 13권의 동화 중 『방탄』과 『하얀 밤』을 제외한 11권에서 총 134회 묘사되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 결과는 이병승 작가가 쓴 『유언장』, 『비밀』, 『미래』 이 세 권에서 해당 영역의 묘사 횟수가 다른 동화에 비해 많았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이병승 작가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철학이 자

〈표 4〉 창작동화 속 공공도서관 내용 분석기준

구분	서울시 공공도서관 서비스 성과조사 평가 지표 ⁵⁾		본 연구의 세부 분석 영역
	차원(분석 대영역)	세부 항목	
1	공간 및 이용 편의성	• 편리한 출입	• 공간 접근성
		• 충분한 이용 공간	• 이용 환경의 편의성
		• 편리한 시설 이용	
		• 자료 배치 편의성	
2	정보 획득 및 활용	• 편안한 공간	• 환경 쾌적성
		• 쾌적한 공간	• 자료 다양성
		• 다양한 자료 제공	
		• 다양한 주제의 자료 제공	
3	소통 및 정책 반영	• 새로운 도서 및 정보 제공	• 자료 최신성 및 학습 기회
		• 새로운 학습 기회 제공	• 자료 적시성 및 충분성
		• 자료 확보의 적시성	
		• 활용 자료 충분성	
4	문화 · 교육 향유	• 친절하고 적극적인 사서	• 사서의 서비스
		• 다양한 의견 표현 통로	• 정보 제공의 신속성 및 정확성
		• 적절한 사서 도움	
		• 충분한 이용 정보	
5	사회적 관계 형성	• 신속한 이용 정보 제공	• 프로그램 충족 및 참여기회
		• 이용 정보 신뢰성	
		• 적합한 프로그램 제공	• 봉사 기회 제공
		• 새로운 프로그램 제공	• 다양한 커뮤니티 지원
•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 관심도 높은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 교류 형성		
• 문화 활동 지원			
• 봉사 기회 제공	• 다양한 커뮤니티 지원		
•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세대 교류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 교류 형성		
• 인간관계 형성			

신의 작품을 쓰는 과정에서 깊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병승 작가의 세 작품에 서술된 조사 영역의 내용 일부를 살펴보면, 『유언장』에서는 ‘도서관을 부수고 건물주가 되는 건 좋다. 그렇지만 도서관이 없어지면 슬퍼할 사람들이 많을 거다’가 있고, 『비밀』에서는 ‘도서관에서 보낸 시간이 좋았던 것 같다. 그래서

또 오고 싶어진 것이다’가 있고, 『미래』에서는 ‘아, 사랑이 꽃피는 도서관! 그동안 영훈이가 여길 기웃거린 이유는 지우 때문이었다’가 있다.

한편, 12가지 세부 영역의 묘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관계 형성’ 대영역의 세부 영역인 ‘사회적 교류형성’이 113회(25%)로 그 빈도가 가장 높고, ‘소통 및 정책반영’ 대영역의 ‘사서

5) 서울도서관 (2024). 2024년 서울시 공공도서관 서비스 성과조사 결과보고서, 4.

〈표 5〉 분석 대상 도서별 5개 대영역 12가지 세부 영역 묘사 횟수

분석 내용 서명	공간 및 이용 편의성			정보 획득 및 활용			소통 및 정책 반영		문화·교육 향유		사회적 관계 형성		합계 (%)
	공간 접근성	이용 환경의 편의성	환경 쾌적성	자료 다양성	자료 최신성, 학습기회	자료 적시성, 충분성	사서의 서비스	정보제공 신속성, 정확성	프로그램 충족, 참여기회	봉사 기회제공	다양한 커뮤니티 지원	사회적 교류형성	
송현주	1	1	·	·	·	5	6	·	5	·	·	7	25(5.5)
위협	5	9	·	3	1	4	2	2	6	1	1	6	40(8.9)
봉봉	1	14	·	6	8	2	9	1	6	5	16	7	75(16.6)
책 도둑	1	1	·	1	·	3	6	6	·	1	·	4	23(5.1)
유언장	3	·	6	7	3	1	2	·	5	8	·	21	56(12.4)
여름	·	4	·	4	2	1	2	·	·	·	·	1	14(3.1)
비밀	6	14	·	1	3	·	8	·	2	5	3	24	66(14.6)
낙서	5	7	2	2	3	9	11	2	2	·	·	9	52(11.5)
방탄	1	·	·	2	·	1	6	1	·	·	·	·	11(2.4)
미래	1	4	2	2	·	·	·	2	6	·	1	24	42(9.3)
하얀 밤	5	1	·	1	·	·	3	·	·	·	·	·	10(2.2)
리보	·	2	·	1	1	1	2	4	6	·	·	9	26(5.8)
숨숨	2	·	·	·	·	·	5	·	·	3	·	1	11(2.4)
소계(%)	31(6.9)	57(12.6)	10(2.2)	30(6.7)	21(4.7)	27(6)	62(13.8)	18(4)	38(8.4)	23(5)	21(4.7)	113(25)	451(100)
합계(%)	98(21.7)			78(17.4)			80(17.8)		61(13.4)		134(29.7)		

의 서비스'가 62회(13.8%)로 그다음으로 높다. 반면에 '공간 및 이용 편의성' 대영역의 '환경 쾌적성'은 10회(2.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공간 및 이용 편의성' 대영역의 세부 영역인 '환경 쾌적성'을 살펴보면, 조사 대상 도서 중 『유언장』, 『낙서』, 『미래』에서만 쾌적성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세부 영역인 '사회적 교류 형성'과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적 교류 형성'에 대한 묘사 횟수가 대체로 많은 세 도서인 『미래』(24회), 『유언장』(21회), 『낙서』(9회)에서만 '환경 쾌적성'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세 도서의 두 작가⁶⁾가 공공도서관의 '환경 쾌적성'을 원활한 사회적 교류

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쾌적한 도서관 환경이 시민들이 긍정적인 사회적 교류를 형성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드러낸다.

한편, 대영역인 '사회적 관계 형성'의 세부 영역인 '다양한 커뮤니티 지원'이 『봉봉』에서 총 16회 묘사되어 다른 도서에 비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구체적인 묘사 내용은 '내가 도서관을 좋아하는 건 어느 때고 자유롭게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친구들과 함께 숙제하지, 함께 책을 읽지, 함께 이야기하지, 도서관은 책 놀이터, 우리의 아지트' 등이 있다.

다음으로 조사 대상 도서별로 살펴보면, 『봉

6) '미래'와 '유언장'의 작가는 동일인이다.

붕』이 75회(16.6%)로 분석 영역을 가장 많이 묘사하고 있고, 그다음은 비밀이 66회(14.6%)이고 유언장이 56회(12.4%)다. 한편, 『붕붕』이 분석 영역을 가장 많이 묘사하고 있는데, 이 결과는 해당 동화의 작가가 현직 사서라는 점⁷⁾과 관련이 있고, 도서관을 잘 이해하는 동 작가가 공공도서관의 다양한 이미지를 서사적으로 풍부하게 묘사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공공도서관을 잘 이해하고 경험이 많은 현직 사서가 공공도서관을 배경으로 한 창작동화를 쓰는 것은 어린이에게 공공도서관의 다층적이고 긍정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서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잘 표현하고, 자연스러운 서사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윤희와 김종성(2014)은 도서관을 배경으로 하는 동화의 문학과 작품성을 살리기 위해서 사서와 전문 작가가 협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전문가 간의 협력은 공공도서관이라는 주제의 현실성을 유지하면서도 문학적인 깊이를 더할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실제 창작 환경에서는 이러한 협력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도서관계가 작가와 공공도서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창작을 지원하는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분석 영역에 대한 묘사 횟수가 매우 적은 도서를 살펴보면, 『하얀 밤』이 10회로 가장 적고, 그다음으로 『방탄』과 『숨숨』이 11회로 적다. 『여름』도 14회로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도서가 다른 동화에 비해 공공도서관에 대한 묘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특히, 『숨숨』과 『하얀 밤』은 동일 작가의 작품인데, 이러한 사실을 통해 봤을 때 해당 작가가 다른 작가에 비해 공공도서관에 대해 서술을 많이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2 긍정적 및 부정적 내용 묘사

조사 대상 13권의 동화가 공공도서관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5개 대영역별로 살펴보았다. 즉, 13권의 동화가 공공도서관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서술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분석 대상 도서별 5개 영역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묘사 횟수

5개 대영역	긍정 묘사 횟수	부정 묘사 횟수	합계(%)
공간 및 이용 편의성	59	39	98(22)
정보 획득 및 활용	65	13	78(17)
소통 및 정책 반영	69	11	80(18)
문화·교육 향유	59	2	61(13)
사회적 관계 형성	126	8	134(30)
합계(%)	378(84)	73(16)	451(100)

7) 해당 동화 작가는 자신의 동화책에 자신을 공공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13권의 동화가 5개 대영역에 대해 묘사한 횟수는 총 451회이다. 이 중 긍정 묘사는 378회(84%)로 창작동화 속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13권의 동화에서 가장 많이 묘사된 영역은 134회(30%)의 '사회적 관계 형성'이며, 긍정 묘사도 126회로 가장 많다. 이 결과는 창작동화에서 공공도서관이 사회적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공공도서관이 사람들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커뮤니티 지원 및 사회적 교류의 기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창작동화의 도서관에 대한 묘사가 긍정적인지 혹은 부정적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 문학의 특성상 이분법적 구분이 모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히 단어의 출현 빈도를 보기보다는 서사 구조 내에서 문맥적 의미를 우선시하였다. 더불어, 인물의 대사뿐만 아니라, 표정, 몸짓 등 비언어적 소통 요소를 살펴보며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둘째, 긍정과 부정의 판단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어 서울시 공공도서관

서비스 성과조사 지표와 연계하여 분석기준을 마련하였고, 이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조사 대상 동화 13권에 나타난 구체적인 긍정 및 부정 묘사의 일부 사례는 〈표 7〉과 같다.

부정 묘사가 가장 많이 나타난 대영역은 '공간 및 이용 편의성'이며,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영역은 부정 묘사가 2건에 불과한 '문화·교육 향유' 대영역이다. '문화·교육 향유'는 부정 대비 긍정 묘사 비율이 5개 대영역 중 96.7%로 가장 높는데, 이 결과는 현실 속 실제 이용자들의 공공도서관의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창작동화 속에서 잘 투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4.3 서울시 공공도서관 정책 가중치와 본 연구 결과 비교

'서울시 공공도서관 서비스 성과조사'의 지표별 정책 가중치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표 8〉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공간 및 이용 편의성'과 '정보 획득 및 활용' 지표에 25%의 높은 가중치를 배정했고, '소통 및 정책 반영'과 '문화·교육 향유'에 15%, '사

〈표 7〉 조사 대상 도서에 나타난 긍정 및 부정 묘사 내용

구분	구체적인 묘사 내용 사례
긍정 묘사	'작은 도서관이 다 내방 같아' '손녀랑 도서관에 처음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서관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 '도서관에 들어서니 도우미 명찰을 단 쌍둥이가 손을 흔들었다.' '그 말을 들은 (도서관)청원 경찰이 친근하게 답해 주었다.'
부정 묘사	'좀 조용히 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긴 도서관이야' '문 닫을 시간이 되었는데도 반납을 안 하네. 오늘 반납하지 않으려나?' '애들아, 여기서 다투면 안 돼. 책 안 볼 거면 가거라' '너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도대체! 관장님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고막을 아프게 찢렸다.'

〈표 8〉 서울시 공공도서관 정책 가중치⁸⁾와 본 연구 결과 비교

구분	결과단계					영향단계
	공간 및 이용 편의성	정보 획득 및 활용	소통 및 정책 반영	문화·교육 향유	사회적 관계 형성	개인의 삶과 역량
서울시 정책 가중치(%)	25	25	15	15	10	10
본 연구 결과(%)	21.7	17.4	17.8	13.4	29.7	. ⁹⁾

회적 관계 형성'에 가장 낮은 가중치인 10%를 배정하였다.

그러나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시의 영역별 정책 가중치를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비교해 보면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다. 창작동화에서는 '사회적 관계 형성' 영역에 대한 묘사 비율이 29.7%로 가장 높은 반면에 같은 역할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적 가중치(10%)는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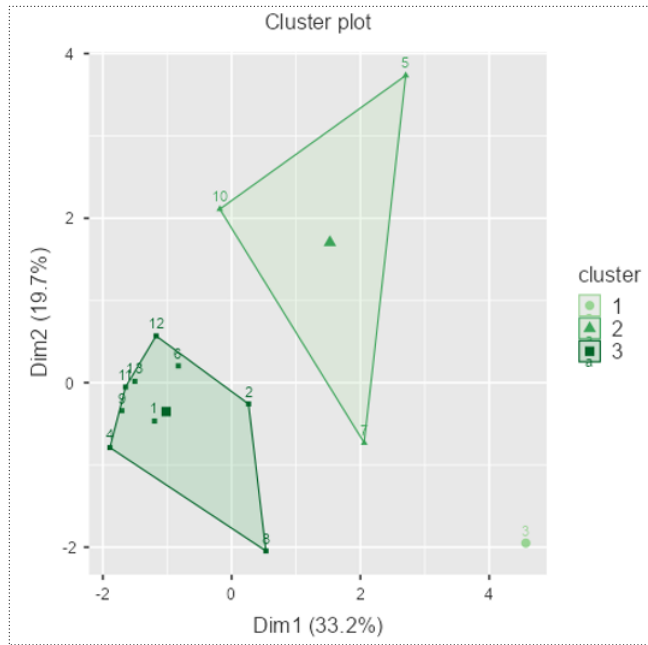
한편, 본 연구 결과를 서울시의 공공도서관 정책 가중치와 비교하는 데는 다음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서울시 공공도서관 서비스 성과조사 가중치 지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도서관의 패러다임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창작동화 속 공공도서관의 이미지 해석에 적절한 기준점을 제공해 준다. 둘째, 서울시는 국내 지자체 중 가장 밀집된 도서관과 예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비스 및 운영 측면에서 타 지자체 도서관 정책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지표를 넘어 국내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지향하는 최선의 지표

라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선행연구인 우윤희와 김종성(2014)의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우윤희와 김종성(2014)은 창작동화에서 도서관의 지역공동체적 성격 비중이 크지 않다고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 공동체적 성격을 대변하는 사회적 관계 형성 영역이 공공도서관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이미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선행연구가 공공도서관 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 등을 혼합하여 분석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지역공동체적 이미지가 충분히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최근 출판된 창작동화에 나타난 공공도서관의 이미지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며 교류하는 장소로서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모비(Jamovi)¹⁰⁾의 Cluster plot 기법을 이용하여 〈표 5〉의 데이터로 군집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병승 한 작가의 작품이면서 '사회적 교류 형성'에 대한 묘사가 많았던 『유언장』, 『비밀』, 『미래』이 세 권의 도서가 하나의 군집(cluster 2)을 형

8) 서울도서관 (2024). 2024년 서울시 공공도서관 서비스 성과조사 결과보고서, 10.
 9) 본 연구에서 조사하지 않았음.
 10) 자모비(Jamovi): 데이터 분석 및 통계적 테스트를 수행하는 R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한 무료 오픈 소스 통계 분석 프로그램.



번호	축약서명	번호	축약서명	번호	축약서명	번호	축약서명	번호	축약서명
1	송현주	4	책 도둑	7	비밀	10	미래	13	숨숨
2	위험	5	유언장	8	낙서	11	하얀 밤		
3	붕붕	6	여름	9	방탄	12	리보		

〈그림 1〉 도서별 군집분석 Cluster plot

성했다.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티 지원’에 대한 높은 묘사 횟수를 보였던 『붕붕』은 다른 도서들과 구별되어 독자적으로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였다. 통계적인 분석으로도 이러한 작품들의 특성이 확인되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창작동화에 묘사된 공공도서관에 관한 내용을 조사해 어린이가 내면화하는 공공도서관의 이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국내 작가가 쓰고 2015년부터 2024년 사이

에 국내에서 출판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배경으로 하는 창작동화 13권을 3차에 걸친 도서 검색 및 내용 분석 과정을 거쳐 선정·분석하였다. 동화 속 공공도서관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서울시 공공도서관 서비스 성과조사’ 지표를 토대로 5개 대영역의 12가지 세부영역을 분석기준으로 삼았다. 5개 대영역은 ‘공간 및 이용 편의성’, ‘정보 획득 및 활용’, ‘소통 및 정책 반영’, ‘문화·교육 향유’, ‘사회적 관계 형성’이다.

창작동화 속 공공도서관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 13권의 창작동화가 공공도서관 관

런 5개 대영역에 대해 묘사한 횟수는 총 451회로 밝혀졌다. 이 중 378회(84%)는 긍정 묘사로 나타나 창작동화 속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5개 대영역 중 '문화·교육 향유'가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공간 및 이용 편의성'은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5개 대영역 중 가장 많이 묘사된 것은 134회의 '사회적 관계 형성'이며, 긍정 묘사도 126회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화에서 공공도서관이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 대상 도서 13권 중 『붕붕』이 가장 많은 세부 영역을 묘사하였다. 이 결과는 해당 동화의 작가가 현직 사서라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동일 작가(이병승)가 쓴 『유언장』, 『비밀』, 『미래』 이 세 권에서는 대영역인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한 묘사 빈도가 다른 도서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작가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철학이 창작 과정에 깊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조사 대상 도서 13권에 묘사된 5개 대영역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 및 이용 편의성'은 긍정 59회, 부정 39회로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나, 사립 작은 도서관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에서는 운영 주체인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많아 부정적 묘사가 확인되었다.

둘째, '정보 획득 및 활용'은 동화 속 등장인물이 다양한 형태 및 주제의 자료를 활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어린이가 도서관의 근본 존재 이유와 핵심 가치를 인식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정보 활용 능력도 함께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소통 및 정책 반영'은 긍정 69회, 부정 11회로 대체로 긍정적이다. 특히 친절하고 적극적인 사서의 태도와 전문 서비스는 어린이에게 긍정적인 상호작용 경험을 제공하고, 나아가 사회성 발달 및 긍정적인 문제 해결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문화·교육 향유'는 동화 속 등장인물이 새롭고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린이에게 공공도서관이 책을 매개로 새로운 상상력과 창의력을 표현해 볼 수 있는 문화·교육의 공간임을 전달한다. 또한 어린이는 다양한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등장인물을 통해 타인과 협력하는 방법, 협력의 중요성, 책임감 등 사회성 발달에 필수적인 역량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회적 관계 형성'은 동화 속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공공도서관을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관계를 맺는 모습을 통해,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중요한 플랫폼임을 알려준다.

동화 속에 묘사되는 공공도서관의 이미지는 어린이의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창작동화 속 공공도서관의 모습이 더욱 풍부하고 다각적으로 묘사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앞으로 공공도서관이 배경이 되는 창작동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동화가 어린이에게 공공도서관에 대한 긍정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동화 작가, 공공도서관, 사서, 도서관계는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동화 작가는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을 서사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어린이가 공공도서관의 가치와 역할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을 단순한 이야기의 배경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잘 드러나도록 묘사할 필요가 있다.

공공도서관은 동화 속에 묘사된 도서관의 긍정 이미지를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이 동화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역할을 현실에서 충실히 수행할 때, 어린이에게 더욱 가깝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부정 묘사 비율이 높았던 이용 편의성과 쾌적성의 문제를 개선하여, 물리적 환경의 쾌적성을 확보하고 불편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사서가 가장 긍정적인 인적 요소로 묘사되었던 만큼, 현직 사서는 이러한 이상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서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창작동화 속 친절하고 전문적인 사서의 이미지를 실현하고, 단순한 정보 중개를 넘어 어린이 이용자에게 정서적 지지와 문제

해결에 대한 격려를 제공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계는 앞서 말한 작가, 공공도서관, 사서 차원의 모든 노력이 체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 도서관계는 동화 작가를 대상으로 도서관의 최신 트렌드, 다양한 역할과 서비스 등을 공유하는 워크숍 및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는 작가들이 현실적이면서도 교육적인 도서관 모습을 묘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도서관 현장 사서들을 위해서도 동화 속 도서관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인적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이 동화 속에 그려진 긍정 이미지를 실제로 구현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활발히 홍보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의 우수 서비스 사례를 발굴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다각적인 노력이 결합하여 실현될 때, 창작동화는 어린이의 공공도서관 이용을 촉진하는 긍정적 촉매제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은 어린이의 성장 과정에서 더욱 강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시설과 공간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자연 (2001). 동화에서 남녀 평등의 문제. 여성문학연구, 6, 355-374.
김중선 (2024). 환경동화에 형상화된 동물의 삶과 이동: 2020년, 2022년 환경부 '우수 환경도서' 중

- 국내 창작동화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35, 43-97.
<http://dx.doi.org/10.24993/JKLCY.2024.12.35.43>
- 김혜, 오성수 (2017). 아동문학에 나타난 한국 공무원 이미지 분석.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6(4), 143-162.
서울도서관 (2024). 2024 서울시 공공도서관 서비스 성과조사 결과보고서.
- 서은주 (2003). 전래동화와 창작동화의 비교에서 나타난 부모 양육태도 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우윤희, 김종성 (2014). 우리나라 창작동화에 나타난 도서관과 사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1), 277-298.
<http://dx.doi.org/10.4275/KSLIS.2014.48.1.277>
- 윤상욱 (2006). 우리나라 창작동화와 외국 창작동화에 나타나는 부모양육행동과 자녀의 사회적 행동 특성.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 이상진 (2001). 한국창작동화에 나타난 '엄마'의 형상화와 성 역할 문제. 여성문학연구, 6, 375-401.
- 임미경 (2020). 초등학교 대상 창작동화 권장도서에서 나타난 장애 관련 내용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 조경희 (2025). 프랑스 아동문학의 성평등 재현. 현대사회와 다문화, 15(3), 257-284.
<http://dx.doi.org/10.35281/cms.2025.08.15.3.257>
- 조청현 (2004).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창작동화의 선정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여수대학교.
- 최경희 (2024). 한국 그림책에 나타난 생태의식. 한국아동문학연구, 51, 215-247.
<http://dx.doi.org/10.24286/KJCLS.2024.11.51.215>
- 최혜정, 현은자 (2009). 그림책에 나타난 도서관 관련 내용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4(4), 51-71.
- Bogard, D. & Rafferty, P. (2022). In the picture: Representations of librarian in children's picture books published in the UK between 1994-2014. *New Review of Children's Literature and Librarianship*, 27(2), 99-121.
- Sontag, S. (2003). Regarding the Pain of Others. 이재원 옮김(2004). 타인의 고통. 일산: 이후.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Cheong-Hyun (2004). (A) Study on the Selecting Criterion for Created Fairy Tales in Korean Textbook of Elementary School. Master's thesis, Yosu National University.
- Cho, Kyong-Hee (2025). The representation of gender equality in French children's literature.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15(3), 257-284.
<http://dx.doi.org/10.35281/cms.2025.08.15.3.257>
- Choi, Hye-Jeong & Hyun, Eun-Ja (2009). An analysis of the content for relative library education

- through the picture books.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4(4), 51-71.
- Choi, Kyonghee (2024). Ecological consciousness shown in Korean picture books. *Korea Children's Literature*, 51, 215-247. <http://dx.doi.org/10.24286/KJCLS.2024.11.51.215>
- Kim, Hye & Oh, Seongsoo (2017). How are they portrayed?: An analysis of public servants in children's literature in Korea. *Korean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Review*, 16(4), 143-162.
- Kim, Ja-Yeon (2001). The problem on the gender equality in the fairy tales. *Feminism and Korean Literature*, 6, 355-374.
- Kim, Joung-Sun (2024). Animal life and children depicted in environmental children's fiction: Focusing on domestic creative fairy tales among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excellent environmental books' in 2020 and 2022. *The Korea Association of Literature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35, 43-97. <http://dx.doi.org/10.24993/JKLCY.2024.12.35.43>
- Lee, Sang-Jin (2001). The problems of gender-role and the characterization of 'mom' in Korean stories for children. *Feminism and Korean Literature*, 6, 375-401.
- Lim, Mi-Kyung (2020). Analysis of Disability-Related Contents in Recommended Books for Creative Fairy Tale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Seo, Eun-Ju (2003). Changes in Parents' Attitude toward Childrearing, Represented in Comparing Korean traditional stories for children with Contemporary Ones.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Seoul Metropolitan Library (2024). 2024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ublic Library Service Performance Survey Report.
- Sontag, S. (2003). *Regarding the Pain of Others*. Translated by Yi, Chae-won(2004). Ilsaan: Ewhobook.
- Woo, Yunhee & Kim, Jong Sung (2014). Reflections of libraries and librarians in Korean children's literatur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1), 277-298. <http://dx.doi.org/10.4275/KSLIS.2014.48.1.277>
- Yoon, Sang-Oak (2006). Parenting Behavior and Social Behavior Characteristics of Children in Korean and Western Creative Stories.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uwon.